



혜화동성당의 ‘최후의 심판도’

혜화동성당은 1927년 서울에서 명동대성당과 중림동약현성당에 이어서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는 1909년 성 베네딕도 수도회가 승공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과 목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도회가 북한 지역의 복음 선포를 위해 원산대목구(현 함흥교구)의 덕원으로 이전하면서 혜화동성당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성당은 학교의 목공소를 개조한 것이었지만 신자 수의 증가로 새 성전의 건립이 필요했습니다.

1955년에 건축가 이희태(1925~1981)의 설계로 공사를 시작하여 1960년 5월에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고딕이었던 명동대성당이나 중림동약현성당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건물이어서 신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건축가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산세가 완만한 곳에는 고딕 성당보다도 낮은 성당이 어울린다고 여겼습니다.

현대식 건축 양식의 혜화동성당을 건립하면서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미술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기의 작품들은 교회 미술의 선구자 장발(1901~2001) 교수의 지도 아래 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여러 예술가들이 성당 내외부에 수준 높은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세중의 제단과 십자가, 최후의 심판도, 이순석의 세례대, 권순형의 제단 도자 벽화, 문학진의 103위 순교 성인화, 이남규의 유리화, 이종상의 성수대, 최종태의 성모 마

리아상과 요셉상, 최봉자의 십자가의 길 등 많은 교회 미술품이 있습니다. 혜화동성당은 우리나라 교회의 미술관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당 입구 전면(파사드)의 거대한 직사각형 벽을 꾸민 김세중(1928~1986)과 장기은(1922~1961)의 ‘최후의 심판도’입니다. 1961년에 화강암으로 제작된 작품 가운데는 지구의의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손을 들어 최후 심판하는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크기는 556×1764cm에 이르며 두께는 6cm입니다.

양쪽에는 날개를 단 사람과 동물이 주님을 호위하며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복음서를 상징하는데 사자는 마르코 복음서, 독수리는 요한 복음서, 사람은 마태오 복음서, 황소는 루카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도’ 부조의 형태는 선적으로 단순하게 제작되었으나 안에 담긴 내용은 매우 강렬합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각자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여 영생과 영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작품은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 유물 담당

